

전국대회 잇단 취소...체육특기 수험생 발동동

광주·전남 3학년만 440명
일부 대학 97% 대회 성적 반영
단체·투기종목 대회 전무
대학들 전형 지침 변경에 촉각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규모 대회의 잇단 취소로 체육특기자 전형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97.8%까지 대회 성적을 반영하는 등 입시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대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30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고등학교에는 광주 662명과 전남 730명 등 1400명에 달하는 학생 선수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440여 명이 고등학교 3학

년에 재학 중이다. 실업팀으로 가는 일부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체육 특기자 전형은 전국 대회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이다. 내신 성적 또는 최저학력 도달 여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지만 대회 성적 비중이 대부분 50% 이상일 정도로 높은 편이다. 또 학년별 반영비율도 당해년도(고3 때)의 대회성적이 가장 높다. 실제로 올 들어 열린 전국 대회는 주로 개인 종목인 양궁과 육상, 역도, 펜싱, 사이를 등 5개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마저 대회 횟수는 한 두 번에 그쳤다. 여기에 유도나 레슬링 등 선수 간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투기 종목의 경우 여태까지 전국대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다 앞으로 수시가 마감되는 9월까지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특기자전형 등을 바탕

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들의 고민이 깊다. 특히 야구나 농구, 축구 등 단체 종목 특성상 고3 선수들의 입상 성적을 위해 저학년출전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저학년 때 출전을 많이 하지 못했던 올해 고3 선수들은 정작 대회가 열리지 않아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두번의 대회 성적으로 합격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입시가 '복불복'에 가깝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광주체육고 3학년 김모 군은 "고2때 대회 성적이 부진해 지난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회가 없어 힘이 빠진다"며 한숨을 쉬었다.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한 학생은 "대회가 계속 미뤄지고 대학교도 준비해야 하는데 성적도 못 내서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레슬링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대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특기생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선수들은 대회 수상실적이 중요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들도 난감한 마진까지다. 예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각 대학별 선발 규정이나 지침이 나와야 컨설팅이 가능한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아직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주 광주체육고 진로진학지도부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각 대학의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특기자전형 대회 실적 인정 기간을 변경하고 면접이나 실기시험 비중을 높이지 않을까 예측하며 지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언택트 휴가, 집에서 DVD 영화 즐기세요

금호평생교육관
무료 대출 서비스 시행

"영화 DVD 가정에서 즐긴다."
금호평생교육관이 다음 달 4일부터 교육관 도서대출회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영화와 TV 드라마 등이 담긴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대출을 시행한다.

DVD 대출은 회원 1인당 5점(도서 대출 권수에 포함)이며 대출일을 포함해 15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도서관

DVD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평생교육관이 소장한 DVD는 국내외 영화-애니메이션-TV 드라마 등 4329점이다. 자세한 목록은 교육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옥 금호평생교육관 관장은 "DVD와 더불어 홈페이지의 전자책과 교육관 1층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한 오디오북, 디지털자료실 내 VOD 서비스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

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몰카 탐지기 11대 구입만 하고 방치

2018년 구입후 한번도 사용 안해

광주교육청이 몰카카메라 적발기기를 구입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남구2)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지난 2018년 12월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기 11대를 구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이 기기를 이용해 교육 시설의 몰카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 한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최근 교육부가 교내 불법 촬영 시설 전수조사 지침을 내리자 시 교육청

은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몰카카메라 적발 기기를 구입하고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아 산을 낭비했다"며 "외부 업체 용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에 구입한 기기는 최근의 몰카카메라를 적발하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남구 진월동에 '복층림+산책길' 갖춘 명품숲 조성

광주 남구 진월동 제석산 밑자락에 복층림과 산책길을 갖춘 '힐링 숲'이 조성된다. 남구는 30일 "진월동 대주 아파트 언덕 밑부분과 제석산 사이에 방치된 내대지를 활용해 복층림의 숲과 산책로, 쉼터 공간이 어우러진 진월 도시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콘크리트 포장과 잡목 제거 등 철거 공

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구간은 대주아파트 1차 단지와 브라운스톤 단지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대주아파트 2단지 출입구 언덕 윗부분까지 약 240m이다. 이곳에는 높낮이가 다른 나무와 아리따운 꽃을 식재한 복층림 형태의 힐링 숲이 조성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서구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참여자 모집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서구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어린이의 시선에서 그림책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조경희 동화작가의 도움

을 받아 그림책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 넣은 나만의 그림책을 제작하게 된다. 그림책 스토리 구성, 캐릭터 연구를 통해 그림책을 제작한 후 출판 말 출판기념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경우 대면으로 전환 운영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전국 최초 '에듀테크 미래교실' VR 콘텐츠 개발 신규 구축 7개 학교 지원

전남교육청이 '에듀테크(EduTech) 미래교실' 공간 구축을 지원하는 VR(가상현실) 콘텐츠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신규 구축 학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듀테크는 원격교육을 넘어 맞춤형 교육, 교사업무경감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VR(가상)·AR(증강)·MR(혼합

현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콘텐츠·솔루션·하드웨어·시스템 등에 접목한 교육서비스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에듀테크 미래 교실이 구축된 목포 용호초, 여수 도원초, 보성 겸백초, 진도 서초, 나주 남평중, 광양 백운중, 화순 이양중 등 7개교다.

도 교육청은 VR 교육콘텐츠를 '전남교육 TV 유튜브'와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이들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청은 올해 80개교에 에듀테크 미래 교실이 구축되면, 이들 학교도 VR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희 전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에듀테크 미래교실' 구축 공간 VR 콘텐츠 탑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간을 구축하는 학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타 공간구축사업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N·B

Him e Bionz Solar Energy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Him e Bionz Solar Energy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